

6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네 마녀의 날' 시소끝 혼조	뉴욕증시가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 1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주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전날에 비해 15.87포인트(0.19%) 하락한 8,539.73을 기록한 반면 S&P500지수는 2.86포인트(0.31%) 오른 921.23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 역시 19.75포인트(1.09%) 오른 1,827.47로 장을 마쳤다. 국제통화기금(IMF)과 또 유럽연합(EU)이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내놓으면서 미 증시는 일제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지수 및 개별종목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쿼드러플위칭데이)을 맞아 거래량이 급증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장 중반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시소양상을 보였음. 금융주와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마감까지 상승세를 지켜냈지만, 다우지수는 장 막판 약보합권으로 밀렸음.
IMF, 성장전망 상향 예정..EU "지속가능한 성장 기대"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부총재는 이날 터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침체 완화를 반영해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소폭 상향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 여건들이 개선돼 경기 신뢰도가 회복되고 있고, 생산 및 수요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음. 다만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린다"며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국의 경제 정책은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시장 정상화를 우선 방향으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음. 유럽연합(EU) 정상들도 이날 브뤼셀에서 상반기 결산 정례회의를 갖고 성명을 통해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의 징후를 발견했다"며 "추가적인 부양조치는 불필요한 반면 이제 출구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음. 유럽의 5월 기업·소비자 신뢰지수는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 투자심리지수는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국제유가 약세	미국내 휘발유 공급증가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1.82달러(2.6%) 떨어진 69.55달러로 마감했음.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휘발유 공급 증가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으며 지난주말 현재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339만배럴 늘어난 2억 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목	주요 내용
도시바, LED전구 반값 인하..가격전쟁 본격화	도시바 계열인 도시바조명기술은 지난 3월 업계에서 최초로 40와트짜리 가정용 LED 백열전구를 1만500엔에 출시. 그러나 샤프가 지난 11일 소비자용 LED 전구를 오는 7월부터 4,000엔선에 판매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시바 역시 제품 가격을 경쟁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고, 올 여름 40와트와 60와트 LED 전구가격을 5,000엔선까지 인하할 계획.
외국인 日증시 투자 감소.."글로벌 위기 탓	지난 19일 도쿄증권거래소(TSE)와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증권거래소 등 5개 증권소에 따르면 지난 3월말로 끝난 2008 회계연도 일본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23.6%인 것으로 나타났음. 한 해 전 27.6%에 비해 하락.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회계연도 5개 거래소에서 순매수한 규모는 4조2,200억엔(438억7,000만달러)였음. 한 해 전엔 7,215억엔이었음.
5월 부도업체수 감소..1년8개월래 최저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어음 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5월 당좌거래 정지업체를 기준으로 한 부도업체수는 151개로 전월보다 68개 줄었음.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의 부도업체수가 각각 32개와 36개씩 감소.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도업체수가 크게 줄었음. 서비스업에서 30개, 제조업에서 27개, 건설업에서 19개가 감소. 이는 우리나라 경기 하강세가 진정되고 있는 데다 신용보증 확대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 개선 추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
아름다운 동행` LG, 인턴 80% 정규직 채용	LG는 올해 680여명의 인턴사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 중 550명이 정규직 사원이 되는 셈. 올 상반기 각 계열사별로 선발된 인턴사원 410여명 중 80% 이상인 340여명이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될 예정. 이달 말까지 LG전자와 LG화학, LG생활건강, LG하우시스, LG생명과학, LG텔레콤, LG데이콤, LG과워콤, LG CNS, 서브원은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할 예정.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